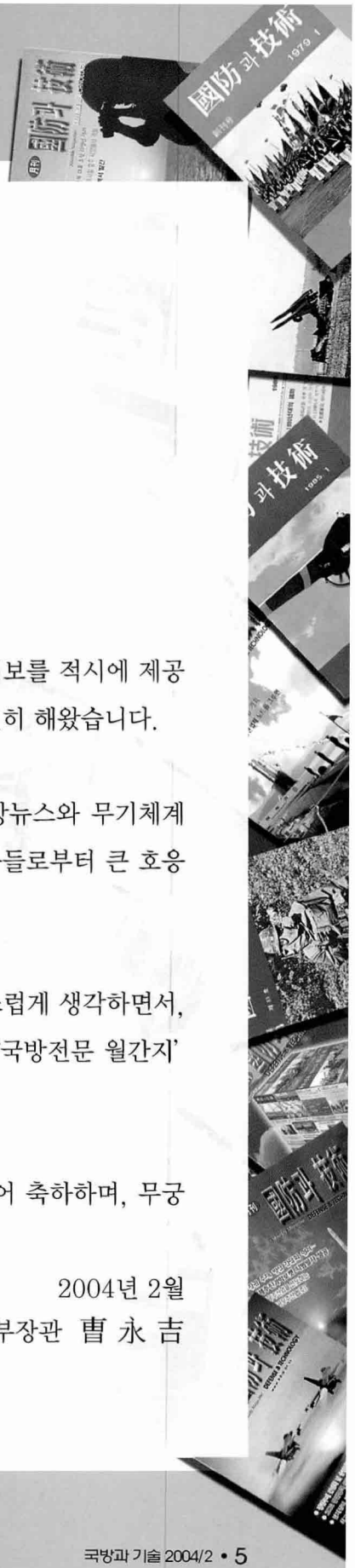
지령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79년 1월에 창간된 〈국방과 기술〉은 자주국방을 끊임없이 추구해 온 우리 국군발전사와 호흡을 함께하면서 애독자들의 벗이 되어 온 자랑스러운 월간지입니다.

자주국방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던 시기에 첫 발을 내디딘 〈국방과 기술〉은 "국군 장병, 산업인, 학생들의 귀중한 교양지와 반려자"가 될 것을 천명한 이후 지금까지 창간정신을 지키면서 방위산업발전과 군의 과학화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본 월간지가 지난 25년간 국민에게 국가 방위산업육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군 간부들에게 세계 각국의 장비개발이나 기술동향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군 과학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신선한 촉진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보화 · 과학화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외의 국방뉴스와 무기체계 소식은 물론, 전문가들의 기고를 확대하는 등 지면 혁신을 통해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본인은 〈국방과 기술〉이 이처럼 국방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월간지가 지령 300호 발행에 즈음하여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국방전문 월간지'로 발전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방과 기술〉의 지령 300호 발행을 국군 장병과 더불어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년 2월

국방부장관 曺 永 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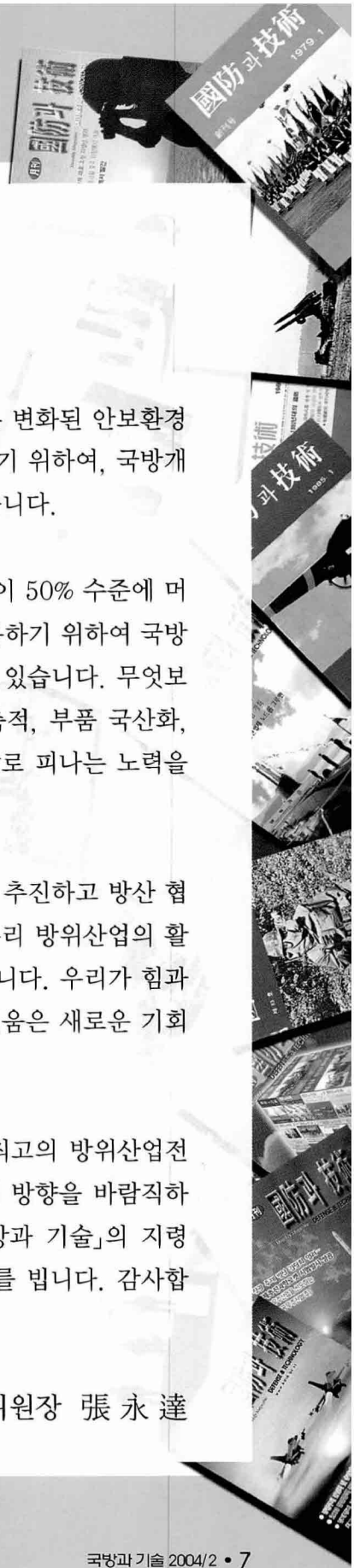
세계적인 국방기술전문지로 우뚝 선 <국방과 기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방위산업 분야의 관계자 및 「국방과 기술」의 독자와 집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장영달입니다.

먼저 갑신년 올 한해도 70만 장병 여러분의 가족에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복무기간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1979년 1월 창간되어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의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기술 잡지인 「국방과 기술」의 300호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전 세계적 군사재편,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력 증가추세, 그리고 전 세계적 테러의 확대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로 조성된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



는 시대적 과제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과 안보 관계자들은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국력을 신장하고, 동북아시아 평화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산 현실은 지난 수년간 평균 가동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방산업체는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핵심기술 축적, 부품 국산화, 해외 시장개척, 원가절감 등 방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국방부도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군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방산 협력과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들은 모두 우리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해외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나갈 때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유수의 군사전문지와 정보를 교류하며 국내최고의 방위산업전문지에서 세계적인 군사기술 전문지로 발돋움하여 우리 방위산업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야 할 사명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방과 기술」의 지령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張永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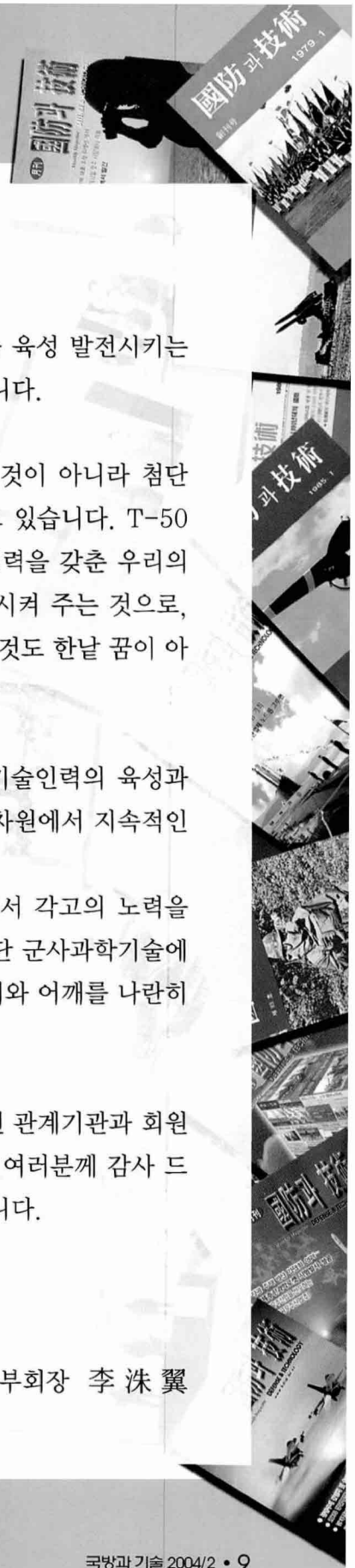
지령 300호 발간을 기념하여…

급격히 변모하는 국제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의 주역으로 우뚝 서고자 치열하게 경쟁을 펼친 산업 역군 및 회원사 여러분과,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안보의 기반을 받쳐 준 육 · 해 · 공 · 해병 장병,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위산업 초창기인 1979년 1월 국내 군사전문잡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창간된 월간〈국방과 기술〉誌는 그 동안 선진 각국의 첨단 무기체계와 기술 발전추세, 국내 · 외 국방 뉴스 및 방산업계 동향 등을 제공하며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해 오면서 지령 300호를 발간하게 됨을 회원사 및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며, 훌륭한 원고로 잡지를 빛내 주시는 필자 여러분과, 격려와 성원을 함께 보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으며, 체제 안보의 핵심으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차전은 과학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첨단 정밀무기의 보유



와 운용이 전쟁을 억지할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자주적 안보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위산업도 재래식 기본 병기의 충족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첨단 정밀 병기의 독자적 개발로 한단계 도약해야 할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T-50 골든 이글, K-9 신형자주포 및 KDX-Ⅱ 구축함 건조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방산장비가 속속 개발되는 것은 우리 방산 기술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향후 우리 나라가 주요 무기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탈바꿈 하는 것도 한낱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적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연구개발 시설확충 및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월간〈국방과 기술〉은 국군 장병 및 방산 최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흐름을 이해시키는데 더 한층 노력하면서 세계 유수의 군사잡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령 300호를 발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관계기관과 회원사, 국군장병, 애독자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행에 힘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李 洙 翼